

# 강진 절화수국 화훼 수출 새 강자 부상

### 4.9ha 생산 상반기 6만본 日 수출...2억5000만원 소득 수국 꽃길 연계 대형 수국공원 조성 랜드마크 육성 계획

강진군의 절화수국이 화훼 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.

강진군에 따르면 그린화훼영농법인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동안 총 24회에 걸쳐 6만본의 절화수국을 일본에 수출했다. 금액으로만 2억5000만원어치다. 현재까지 누적 수출량도 53만본, 총 27억원에 이른다.

그린화훼영농법인은 10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수국 수출을 시작했다. 현재 19명의 화원과 함께 4.9ha 면적에서 절화수국을 생산하고 있다. 생산된 수국은 전남지역 수국 생산량의 61%, 수출 생산량으로는 45%를 차지한다.

강진에서 재배되는 수국은 3월부터 11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. 저온성 작물이라 다른 화훼 품종보다 난방비가 25%가량 절감되고 수확기가 조절이 가능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.

강진군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

업으로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7동과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설치하고 수출용 화훼 유통 장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이와 함께 군은 수국의 관광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.

강진을 고성사, 금곡사, 보은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총 8km에 달하는 수국 꽃길을 조성했다.

올해는 20리 수국 꽃길과 연계한 1만 2000㎡ 규모의 대형 수국공원을 만들어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.

김양석 그린화훼영농법인 대표는 "세계 화훼 시장에서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"이라며 "우리나라 수국은 꽃이 오래가고 화색이 좋아 해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"고 말했다.

/강진=남철희 기자 choul@



강진군의 절화수국이 수출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. 만개한 수국을 젊은 여성들이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. <강진군 제공>



## 강진군 전라병영성 건물복원 예산확보 분주

### 이승옥 강진군수, 문화재청 방문 내년 예산 반영 건의

이승옥 강진군수가 문화재청을 방문해 전라병영성 내부 건물복원 예산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이 군수는 최근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제107호로 지정된 전라병영성 병영성 객사와 연희당 등 내부 건물을 복원하고 외부 해자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. <사진>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8년 성곽 복원사업을 시작해 2016년 성곽 및 문루 복원을 모두 완료했다. 성 내부의 전체 발굴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외부 해자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.

강진군은 성 내부에 가장 핵심 건물인 객사(침실각)와 연희당 및 연지 등의 복원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

행해 단기 복원계획을 수립했다.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해자 정비를 시작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이 군수는 또 정 청장에게 강진 도요지와 함께 해남군, 부안군이 연합한 '한국의 고려청자요지'로 잠정목록을 수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문화재청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.

이승옥 강진군수는 "강진군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될 전라병영성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"며 "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 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'강진 도요지'가 올해를 기점으로 반드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/강진=남철희 기자 choul@



청소년 동아리 박람회에 분식가게 체험팀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행사장에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. <장흥군 제공>

## 장흥군 '청소년 동아리 박람회' 성료

### 전남 7개 시·군 11개 공연팀·23개 체험팀 400여명 참가

장흥군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재능 발굴을 위해 개최한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.

장흥군청소년수련관·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고, K-water전남서남권지사·귀족호도박물관

이 후원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지역 7개 시·군의 11개 공연팀과 23개 체험팀 400여명이 참가했다.

체험팀에서는 네일샵, 캘리그래피, 달걀그림 그리기, 분식가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선보였다.

장흥군은 제12회 정남진 물축제 기간에도 군과 청년회의소가 각각 주관하는 '강변음악축제'와 '정남진 장흥물축제 청소년 잔치'를 열고 청소년들이 넓은 무대에서 숨은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할 계획이다.

또 다음달에는 여름캠프와 청소년이 직접 꾸미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청소년 스스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.

/장흥=김용기 기자·중부취재본부장

## 영암군 추경 첫 6000억 돌파 복지분야 등 6060억원 확정

영암군의 추가경정예산이 군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대를 돌파했다.

영암군은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6060억원을 지난 24일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30억원 대비 830억원(15.87%) 증가한 것이다. 지난 2014년 3955억원, 2016년 4413억원, 2018년 5290억원에서 차츰 증가해 6000억원을 돌파했다.

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대비 768억 원(16.26%)이 증가한 5492억원,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(1.61%)이 증가한 81억원이다.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원(14.27%)이 증가한 487억원을 편성했다.

가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8억원(22.03%), 사회복지분야 1317억원(21.73%), 수송 및 교통, 국토지역개발 분야 878억원(14.50%), 환경분야 797억원(13.16%) 순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추경은 보편적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141억원,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에 428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회복지와 주민생활 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.

/영암=전봉헌 기자 jbh@



## 영암경찰, 국가유공자 자택 명패 달기 '뜻깊은 행사'

영암경찰이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주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.

영암경찰서는 지난 26일 국가유공자 자 영암 신복지역에 거주하는 6·25 참전경찰 유공자 황모씨의 자택을 방문해 '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' 행사를 실시했다. <사진>

이 날 행사에는 박영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도 함께했다.

양희선 영암경찰서장은 "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마음에 새기겠다"고 말했다.

/영암=전봉헌 기자 jbh@

## 덕남동, 임야 급매

- 장/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
  - 덕남동, 992㎡, 공유지분 매매
  - 도시지역, 자연녹지, 그린벨트, 도로접
  - 인접토지 맹지도 15~20만원에 매매 됨
  - 대학교수, 세무사, 간호사도 공유자임
  - 각종 개발 호재 많음, 투자적합
  -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
  - 매매 - 4500만원(3.3㎡당 15만원)
- 문의. 010-6834-7400

